

코스피 장중 1,600선 돌파 의미

한국 증시 '선진국형으로' 레벨업 신호

10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1,600선 마저 돌파하는 등 한국증시 역사를 새로 썼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수 1,600선 돌파가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도약을 이뤄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한국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밸리 동향 등을 이번 급등의 동인으로 꼽았다.

◇지수 1,600선 돌파의 의미 및 배경=전문가들은 지수가 비록 장중이 아니라 1,600선을 돌파한 것은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우리 증시의 한 단계 도약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토부신한증권 김석중 부사장은 "코스피지수 1,600은 증시 새 역사를 열어가는 과정인 만큼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지수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한 탄성을 보이면서 4월 초순 이후 한달여만

시장구조 변화·'저축보다는 투자' 사회 흐름 반영

단기 과열권 진입 논란 속 하반기 1,700선 예측도

에 100포인트를 뛰어 넘은 동인으로 '저축에서 투자'로 바뀐 국내시장 환경변화를 꼽았다.

삼성증권 오현석 파트장은 "지수가 2003년3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된 뒤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을 단지 경기호전이나 기업실적 증감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면서 "시장 구조적인 변화와 사회적 흐름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 파트장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노령화되면서 20대부터 노후설계에 나서는 등 사회 분위기가 변한데다 구조적인 저금리로 인해 저축

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실물과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며 이런 변화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과열이지만 상승 지속 전망=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지수가 최고 1,70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단기급등으로 인해 상승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어 단기로는 과열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우리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증시시장이 급등부담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시장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일단 상승세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등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이에 따라 "증폭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기존 주도주들은 상당한 가격대까지 오른 만큼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매매하기는 다소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를 보면서 내수주나 금융주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韓·美 정책금리 모두 동결

韓, 연 4.5% 현수준 유지-美도 5.25% 그대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최근 몇달간 은행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통화 수위가 높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속도가 좀 빠르다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이것이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 "당초 전망했던 대로 4% 중반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물가도 2% 중반 정도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콜금리를 연 4.50%인 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콜금리는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된 후 9개월째 동결됐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가(FRB)도 9일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RB는 이날 금리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5.25%인 기준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FOMC는 이번까지 모두 7차례 열린 금리결정 회의에서 잇따라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

FOMC는 회의 후 발표문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주택시장 침체의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향후 경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역군인 취업박람회'

10일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07 전역군인 취업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인사관공 이상 전역군인들이 관심있는 기업의 취업 문을 노크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건설, 금융, 외식 및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48개 등 총 1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연합뉴스

손우철의 행복한 富 자되기

노후 준비 가로막는 사교육비

자식에 올인... 말년엔 빛에 허덕

가구당 月평균 사교육비 64만원 '허리 휘어' 자녀들에 부모 봉양 기대 말고 노후 준비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국 1천12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

이는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64만6천원으로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조사대상의 5.58%나 됐다.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정도 26%로 추정됐다.

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는 마당에 자신에게 투자할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실제로 재무상담을 해보면 자녀에 대한

막대한 기대감과 남들에게 뒤처진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이 적지 않으며, 이런 가정의 특징은 월 소득 중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돈이 거의 없다. 고정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월 급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자산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과 자녀 대학 교육자금, 자녀 독립자금과 같은 재무목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군다나 퇴직은 점차 빨라지고 자녀가 태어나는 시기는 늦어지다 보니 본인이 은퇴하는 시기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

가 거의 일치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 경우 충분한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면 은퇴 이후 빛을 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재무건전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월 소득의 2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거나, 자녀 교육비 때문에 노후를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가정은 과감히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월 1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사교육비를 50만원으로 줄이고 50만원을 노후자금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50

만원을 8% 수익률로 15년간 투자한다면 1억7천300만원이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던 시대는 지났다. 내 자녀만큼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부모를 봉양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층 자산율이 1위이며, 주된 원인이 자녀의 부양 거부와 경제적 비관이라는 점은 우리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자녀가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채 자녀의 교육에 올인하는 것은 정작 보이지 않는 문제를 키울 뿐이다. 독자 여러분 모두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선을 지켜 자녀 교육과 노후 모두에 성공하시길 바란다. <TNV 에디터이자 FP팀장>

사채 이자 연 36% 못 넘는다

법무부 '이자상한선' 규정안 마련... 내달말 시행될듯

개인간의 금전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6%로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란 내용의 이자상한선 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다.

최근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실제 적용할 이자를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부처 의견조회 이전에 실무협의가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자 상한선으로 연 36%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안이 확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6%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과학경쟁력

작년 10위→7위

기술경쟁력은 6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7위권으로 뛰어올랐다. 과학기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5개 평가대상국 중 과학경쟁력 7위, 기술경쟁력 6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과학경쟁력은 지난해 10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IMD가 1989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술경쟁력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9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과학 및 기술부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과거부는 설명했다. 이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장관의 부총리 승격, 과학기술 혁신본부 신설 등 적극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차세대 성장동력의 집중육성, 기초·원천연구 확대, 과학기술의 대중화 및 생활화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대기업 57% "채용때 토익 커트라인 없다"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시험 점수에 하한선(커트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에 따르면 최근 업종별 매출 10대 기업 등 130개 대개업을 상대로 입사지원시 토익점수 반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7%가 '지원자의 영어시험 점수에 하한선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입사지원자 영어점수에 하한선을 두고 있는 기업은 43.3%였으며 이들 회사의 영어점수 하한선은 평균 679점(사무

직 688점, 기술직 670점)으로 집계됐다. 영어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52.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 중 영어면접을 실시하는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75.0%), 식음료, 물류·운수, 기계 및 철강·조선·중공업(각각 66.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건설(22.2%), 제약(33.3%), 정보통신(42.9%)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영어면접을 실시하는 기업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대기업 고령자 채용 '인색'

1,950개 사업장 고용률 5% 불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고령자 고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전국 3000 이상 1천950개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현황(2006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상시근로자 223만8천857명 중 고령자는 12만2천719명으로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5.48%를 기록했고 기업

의 평균 연령은 56.9세였다.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2001년 3.0%에서 2002년 3.7%, 2003년 4.19%, 2004년 4.51%, 2005년 4.94%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5.48%를 기록, 5%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업 규모별 고령자 고용률을 살펴보면 300~499인 사업장(8.94%)과 500~999인 사업장(8.30%)은 평균치를 웃돌았으나 1천인 이상 사업장은 3.84%에 그쳤다. /연합뉴스

65나노 디지털 TV칩

삼성, 세계 최초 개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5 나노 공정을 적용한 고성능 디지털TV 수신 칩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TV 수신 칩은 북미 디지털 규격(ATSC :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송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의 디지털 TV에 탑재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하나의 칩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모두 수신할 수 있고, 도심 밀집지역이나 난시정 지역 등에서도 수신 성공률이 기존 제품에 비해 30% 이상 대폭 향상됐다. 또 전력 소비량도 업계 평균인 700mW보다 훨씬 적은 400mW 밖에 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디지털TV 수신 칩 생산공정에 세계 최초로 65나노 고집적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앞선 미세화로 공정 기술력을 입증하고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채널개발팀 이도준 상무는 "이 제품을 3·4분기부터 북미시장과 국내에 출시하는 디지털TV 등에 적용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TV 수요는 올해 8천700만 대에서 2010년에는 1억4천700만 대 규모로 증가, 연평균 약 25% 성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